

# 민주, 총선 7개월 앞두고 호남 새인물 수혈 잔걸음

### 이광범 변호사 등 2~3명 거론 1호 영입인사는 김수현 유력 이르면 이달중 영입인사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혼란한 '조국 정국' 속에 조용히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달 내에 첫 영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호남 지역 영입 인사들의 이름도 하나 둘 흘러 나오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발족식 없이 이미 활동을 개시해 이르면 이달 중 첫 영입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총선 준비에 착수해 인재영입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최종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 중 1차로 인재영입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선부른 인재영입은 각종 정치적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재 영입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전략공천 등 정치적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재영입위는 별도의 위촉 위촉 없이 사실상 '이해찬 1인 체제'로 운영되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실무 작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영입위는 외교·안보·경제 전문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접촉하되 영남·강원 등 협치 출마자나 비례대표 대상자 위주로 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첫 영입 인사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을 당의 대표 협치인 대구·경북(TK) 지역에 전략공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이번 총선에서 TK를 최대 승부처로 삼아 가장 역점을 두기로 한 만큼 김 전 실장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있을 첫 영입인사 발표에서 1명의 인사를 단독으로 발표할지, 복수의 인사를 공개할지를 두고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영입 인사 발표가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연말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발표해야 '봄업'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총선준비기획단도 정식 출범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책 분과를 중심으로 첫 회의를 하고 비상 활동을 개시했다.

당이 이처럼 조용히 총선 준비를 하는 것은 당의 분란을 최소화해 '유타입' 기조를 해치지 않으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이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민생'을 화두로 삼고 이번 정기국회에 원내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을 반영한 행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광범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호남 출신 인사들이 영입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잠신훈 인사들을 적극 영입, 내년 총선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과 국내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2~3명의 전략공천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전략공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MB 내곡동 사저 특검 지내

### 민주당 영입 대상 이광범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61)는 판사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다. 전남대에는 평소 장학금을 기탁해 온 그의 이름을 딴 '이광범 홀'이 있다.

이 변호사는 광주이고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13기)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

장판사 등 25년 동안 법원에 근무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인 지난 2012년 10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활동했다. 2013년 4월부터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의 형은 이상훈 전 대법관이다. 이전 대법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1년 대법관이 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형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법복(法服)을 벗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남대는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에서 '이광범 홀' 명명식을 열었다.

## 문 대통령 "고용·가계소득 개선...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고용·분배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제까지 유지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나 확장재정 운용 기조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용지표와 관련해

"정부는 국정 1호 목표를 일차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즐기치게 노력했다. 최고의 민생이 일차리이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연간 취업자는 작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가계소득 지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효

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내주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그동안 북미 간 경제 국면이 유지됐다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실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만이 사법농단 치유 지름길"

###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초청특강 법원, 사회치유 기능으로 변화 학생 등 300여명 몰려 열기

"2626명의 모든 법관들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사법농단을 치유하고 재출발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16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린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초청 특강 분위기는 뜨거웠다. 강연장 안팎에 모인 미래 법조계를 이끌 어갈 주역들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300여명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강연에 눈과 귀를 모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법학전문 대학원 1호관 111호실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법학전문 대학원 1호관 111호실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김 대법원장은 "광주는 곧 민주고 자유의 상징이다"며 "사법 또한 민주를 기반으로 발전과 성장에 광주가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강연 행사로 광주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김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휴대전화를 꺼내 김대법원장의 모습을 촬영하며 아이돌 스타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이번 강연은 김 대법원장이 미래사법의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나 법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예비 법률티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애로사항이나 법조인 양성제도 등에 관한 진솔한 의견을 서로 상호소통하는 자리였다.

김 대법원장 강연에 대한 학생들의 열기는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학교는 학생들이 선착순으로 강연장에 입장하도록 했는데 강연이 시작되기 10여분쯤 전부터 앞을 지키는 학생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보였다. 학교 측이 마련한 좌석은 가득 찼고 의자에 앉지 못한 수십여명은 의자 주변에 둘러서서 강연에 함께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의 기원에서부터 강의 시작했다. 그는 "정의는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고, 받을 만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는 분배와 연결돼 있다"며 "법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존 권리제한적 법은 권리 부여적 법으로 내용뿐만 아니라 소송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도 내부와 외부의 모습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기존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판결중심법원에서 사회후견 나아가 치유적 기능을 중요시 하는 사회공학적 치유의 법원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법원은 기능 변화에 걸맞은 시스템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덧붙였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강연의 열기가 뜨거웠다. 민감한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 관한 전반 이야기는 법원의 역할이 아니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법부에 영향을 준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다"라고 답변했다.

사법 농단에 관한 질문에는 "제도적 개혁 개선도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은 수직적 관료제 타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학생들의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주고 이후 원하는 학생들과 사진 촬영까지 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일부 학생들은 사용하는 개인 법전을 가져와 김 대법원장의 시인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강연에 앞서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권열·문승발·박승희 열사,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묘역 등을 참배했다.

그는 국립묘지가 아닌 망월동 묘역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포장이 된 큰 그림이 아닌 밑에서 부터 이끄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민주화 역시 대법원장이 이끄는 형태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곳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시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동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